

갯벌의 변신, 패션쇼 - 팝업스토어 선보여

- 갯벌 세계유산의 가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11월 갯벌 세계유산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고창과 서울 그리고 서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생태관광 프로그램은 2021년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해양자원, 지역주민, 관광객의 공존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고창갯벌에서 오는 11월 5일 갯벌을 컨셉으로 한 ‘고창갯벌 워크웨어(작업복) 패션쇼’를 개최한다. 지역민 인터뷰, 갯벌의 염생식물 풍경에서 착안한 패턴을 활용하여 갯벌지역 어민, 생태해설사, 갯벌센터 근무자 등의 작업복을 디자인하였으며, 패션쇼의 전 과정과 고창갯벌의 풍경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고창갯벌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전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갯벌 세계유산의 가치를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성수동에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팝업스토어를 4일간 운영한다. ‘시크릿 에이전트: 숨겨진 유산의 비밀’을 주제로 참여자가 한국의 갯벌의 가치를 수호하는 비밀요원이 되어 테스트를 통과하는 컨셉으로 갯벌의 가치를 사격, 방탈출 등의 체험을 통해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0월 29일(화)부터 온라인 사전예약(<https://www.instagram.com/koempr>)을 받으며, 행사현장에서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천갯벌에서 ‘서천갯벌 탐조 가족 캠프’를 1박2일간 운영한다.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서천갯벌에서 철새를 탐조하고 갯벌 생물을 관찰하며 해양환경 보전 인식 제고는 물론 모닥불 명상과 아침 산책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갯벌에서의 색다른 시간을 제공한다. 11월 1일(금)부터 10일(일)까지 서천군,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명수한 (044-200-5327)

